



안정적인 목표액을 정하면 게임이 그만큼 쉽고 안전하다.

안정적인 목표액을 정하면 게임이 그만큼 쉽고 안전하다.

하지만 그 목표액에 한 번에 전부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. 목표액을 다시 분할하는 것이다.

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져와 목표액이 300만원일 경우 이 목표액 300만 원을 100만원씩 3회로 분할해야 한다.

[카지노사이트](#) 게임을 나누는 데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귀찮을 정도로 세밀하게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다.

그리고 만약에 쪼개진 게임이 이기면, 게임을 잠시 그만두어야 한다. 즉, 게임을 나눌 때는

그 목표액 자체가 하나하나 [바카라사이트](#) 게임이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 목표액이 300만원일 때 게임을 3회로 해

100만원씩 3번 이기기로 했다면 100만원 이길 때 게임을 그만둬야 한다. 게임을 그만두고는

물론 목표액이 적으면 굳이 자리를 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.

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생각해보면 일단 자리를 떠나 두 번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것이 좋다.

1000만 원을 가져온 사람이 목표액이 300만원일 경우 300만 원을 한꺼번에 베팅하면 그것은 목표액을 설정한 의미가 없어진다.